

<끝은 시작입니다>

노무현재단 이사장직을 내려놓을 때 누군
가 말했습니다.

고생하셨다고. 이제 다 끝났다고.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끝은 시작이라고.

막차가 끊어진다고 해도 다음날 아침 첫차가
옵니다.

가게 문을 닫는다고 해도 날이 밝으면 다시
문을 엽니다.

끝은 시작입니다.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모두가 끝났다고 생각할 때, 그때 가장 먼
저 시작하십시오.

